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세르기오스와 성 바코스 순교자

루가 제3주일

성 토마 사도

제7조, 조과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7조 부활 찬양송 / 82. A 217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사도 찬양송 / 84. B 267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62
- 사도경: 고린토 후 6, 1-10 / 봉독서 257
- 복음경: 루가 7, 11-16 / 123. B 65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구원의 말씀

성 세르기오스와 성 바코스 순교자

우리는 성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마르코 6:7) 는 내용을 읽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을 준비시켜 하느님의 말씀 전파하는 사도적 사명을 주어 파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둘씩 짝지어’ 파견했다는 것은 “혼자서 애를 쓰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하는 것이 낫다.”(전도서 4:9)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는 사람이 혼자서는 “자신의 단점도 알지 못하며 자신의 재능도 깨

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역사는 두 사람이 큰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보호하고 도와주는 많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순교 역사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순교자가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함께 순교에 이른 예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순교자들을 함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가 교회에서 10월 7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성 세르기오스와 성 바코스 순교자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는 6일 간 창조물을 생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더 이상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는 끝이 났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만물로서 영원히 더욱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께서 하루 하루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보시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창조물들을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어 창조된 만물을 조화롭게 지키는 관리자로 임명하셨다. 이 말씀에 따라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모든 자연을 다스리며 소통하고 사랑하며 평화로운 가운데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물 간의 아름다운 조화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깨져버렸다. 동물들은 서로 죽이고 자연은 병들어갔다. 이를 가엾이 여기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창조된 세상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구하기 위해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셨다.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새로

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시 주님과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첫 사람인 아담이 하느님과 함께 걷기도 하고, 동물들과 소통하며 아름답고 평화로이 지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본뜻에 따라 온 만물이 하느님처럼 성화되고 사람은 만물을 돌보는 영원한 사제로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창조하신 것을 비유로 ‘뜰에 피는 꽃, 공중을 나는 새, 들짐승, 바다, 산, 하늘, 물, 들판’ 등과 같은 모든 창조물을 이야기하신다. 이러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17세기 말까지 새해의 첫날로 지내 오던 9월 1일을 세계총대주교청에서는 30년 전부터 ‘환경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지구의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려 애쓰는 환경 단체가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예전과는 달리 개인의 의식도 많이 변해 스스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과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 남을 해하는 일은 드물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은’ 창조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몫임을 깨달아야겠다.

▶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하느님은 실제로 계시는가, 아니면 상상으로만 존재하시나?

안토니오 M. 코냐리스 신부



오스트리아 태생의 생리학자 프로이트(S. Freud, 1856-1939)는 하느님은 인간이 지닌, (무엇인가를) 우러러보거나 의지하고픈 깊은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 자신이 창조한 하나의 형상이라고 믿었다. 달리 말해서, 그는 하느님은 (그 형상을) 창조한 사람의 정신 안에만 있고, 그밖의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 만일 프로이트가 맞다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고아이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운명의 지배를 받는 가엾은 생물체일 뿐이다. 어쨌든 프로이트의 영적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들은 매우 바쁘는데, 그것은 정확히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옳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초능력을 지닌 아버지가 필요하니까.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고,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끝없이 관심을 갖고 보살펴줄 그런 존재 말이다. 누군가 신뢰할 수 있고, 어려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를 판단하지만 오직 아버지로서 판단하는 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분을 만들지 않았다. 주님이신 예수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친밀한 말투로 당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며 묻는다. “저기에 누가 있는가?”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다. 불가지론자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상상의 산물인 초능력자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지라고. (요한 3, 16)

▶ 아타나시아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9월 22일 주일 성찬예배 후 에카테리나 포포바 교우의 장남 다니엘 정덕연 교우와 로 살리아 또레사노 고메스 교우가 결혼성사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로만 신부, 안토니오스 신부, 요한 보제가 함께 집전하면서 두 사람의 축복을 빌어 주었고 또한 많은 하객들도 큰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결혼성사 후에는 성당 마당에서 간단한 피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길 기원합니다.

■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청소

지난 9월 28일 토요일에 장년회와 신데즈모스 회원 17명이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방문하여 수도원 안팎을 청소하였습니다. 특히,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난 여름 비로 파손된 부분도 보수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가을 음식 축제

오는 10월 20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나라 음식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장년회 수련회

오는 10월 11일(금)~13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장년회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 식사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재밌는 오락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슬라브 교인 수련회

오는 10월 25일(금) ~ 27일(일)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에서 슬라브 교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예배와 기도, 식사 그리고 영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과 재밌는 오락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부인회 야유회

오는 10월 15일(화) 부인회는 인천 소래포구로

야유회를 갈 예정입니다.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님과 함께 식사와 친교를 나누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가을 음식 바자회

인천 성 바울로 성당에서는 오는 10월 13일(주) 오후 12시부터 성당 교우와 이웃이 함께하는 가을 음식 바자회를 성당 주최로 개최합니다. 다양한 음식과 귀한 상품들이 판매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9월 28일(토)에 세례성사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착실히 교리 공부와 예배에 참석했던 안티아 한은희, 율리아니 조우영, 바울로 조동기, 니콜라오스 권용진 네 분이 정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항상 지금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하느님의 축복으로 정교회가 지향하는 영적 성숙을 갖고 바른 정교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정기 바자회

11월 3일(일)에 정기 바자회가 열립니다. 수익금은 자치구에서 행사하는 어려운 이웃 돕기에 협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해주셔서 뜻깊은 행사를 보낼 수 있도록 교인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이디오피아 정교인 방문

지난 9월 29일(주일) 100여 명의 이디오피아인들이 성 보리스 성당을 방문하였으며, 이들은 매년 행해지는 이디오피아 정교회의 ‘메스켈’의식(이디오피아 정교회의 전통적인 종교 의식으로서,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찾은 사건을 기념하는 축제)에 따라 기도와 성가 찬양을 하였고, 이후 춘천 시내의 이디오피아군 참전기념관 일대로 장소를 옮겨서는 성서 이야기, 설교, 전통 음식 나누기, 성가 합창, 행렬 등을 거행하였습니다.